文의 彫刻은 比較的 線이 굵은 便이나 流麗한 手法이다 左手는 臍前에서 右手는 肩上에서 一條의 蓮줄기를 쥐고 있는 點이 特히 注目되었으며 左膝上에 올려 놓은 右足과 兩手의 表現은 매우 寫實的이었다。蓮華座는 仰蓮單瓣으로서 磨滅이 甚하다。佛像의 相好와 衣文및 蓮華 等의 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麗初로 推定되며 이렇듯 巨作인 類例로서는 優作이라고 생각된다。上記한 바와 같이 이 佛像은 모든 點에서 如來像의 型式을 具備하고 있으나 蓮줄기를 쥐고 있는 例가 如來像에서는 없으므로 앞으로의 硏究結果가 注目된다。

現在 이 곳은 寺境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石澗을 즐기는 逍風客의 來往이 잦아 앞으로의 保存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一九六五年 三月二日 調査)。

實測値(m) 肩幅 二。六 胸幅 一。二
坐高 五。一 膝幅 四。五 膝高 一。一
龕形幅 四。八

Ⅱ

百濟交友錄

金載元

一九四五年 十月初 解放의 벅찬 기쁨에서 아직도 回復되지 않을때 나는 美軍 中尉一名 軍曹 一名과 필차와 四分之一트럭을 몰고 扶餘로 줄달음쳤다。博物館은 美軍政廳의 손에 移管되고 그 責任을 지게 된 筆者는 戰爭末期 扶餘와 慶州博物館에 疎開되었던 陳列品의 서울移送과 扶餘博物館의 管理問題를 硏究하기 爲하여 當時 美軍政廳의 文化關係者와 같이 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筆者가 洪館長을 만나게 된 처음이고 우리의 交友는 이때부터 始作되었던 것이다。

洪思俊氏는 扶餘가 낳은 唯一한 生存하시는「百濟人」으로 그가 없었던들 扶餘에서의 百濟의 모습을 찾을 道理도 없었을 程度로 扶餘에는 百濟의 文化와 遺物을 애끼는 사람이 적었고 山골짜기와 밭고랑에 숨어있는 많은 文化財를 發見하는데 獻身的인 努力을 하여왔다。

洪館長은 비록 시골에서 博物館을 지켜오면서도 가슴에는 恒常 젊음을 간직하고 있었다。恒常 音樂을 즐겨하여서 分分이 애낀 돈으로 蓄音機를 사놓고 洋樂을 홀로 즐기곤 하였다。그런데 六·二五때 이 蓄音機는 掠奪되고 말았다。

그러나 還曆을 맞이하는 樂天家인 洪館長은 白馬江의 船夫의 노래와 바람에 울리는 扶蘇山의 소나무 소리를 벗으로 아직도 每日 百濟기왓장을 드려다보고 있다。「우리나라 古代 美術은 百濟로서 으뜸을 삼는다」고

百濟史와 然齋 洪思俊 先生

李弘稙

洪思俊 先生을 扶餘에서 처음 뵈인것이 一九三四年 여름이었다。내가 大學 三學年 때에 論文을 쓰다 말고 實地踏査로 한여름 南韓一帶를 돌아다닐때 이었다。洪先生은 그때 郡廳에 계시면서 博物館을 擔當하고 계셨다。다 같이 三十도 채 못된 나이였다。그 때부터 洪先生은 百濟史에 熱心이셨다。같이 扶蘇山을 돌아다니며 百濟의 이야기가 그칠줄 몰랐다。지금 내 앨범에는 그 때 博物館 앞에서 찍은 先生의 靑年의 모습이 조그맣게나마 남아 있다。시골서 册求하기 어려운 恨嘆을 하셨다。高麗史한질 있으면 하여 東京에 돌아 가면 求해 보내기로 하였다。그 당시 日本에는 圖書刊行會本이 比較的 싸고 흔하게 古書肆에 보였다。이것을 求해 보냈더니 두고 두고 고맙다고 하셨다。都會地 사람은 시골사람에게 册을 좀 많이 求해 주어야겠다고 항상 말하셨다。그 후 서로 더욱 親해